尹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국운동"...독립유공자 오찬

이동환 입력 2023. 8. 9. 13:45 수정 2023. 8. 9. 13:49

"독립운동,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대한민국 지키는 것으로 이어져"
광복절 맞아 '독립운동 테마' 오찬...생존 애국지사들에 한산모시 선물

윤석열 대통령,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 환영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3.8.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 158명과 8·15 광복절 기념 오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광복군이자 6·25 참전 용사 출신인 김영관 애국지사를 모시고 오찬장에 함께 입장하며 예우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사에서 "고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께 경의를 표하고, 유족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독립운동은 단순히 일제로부터 빼앗긴 주권을 찾는 것만이 아니었다.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도 아니었고,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욱 아니었다"며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은 우리 민족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었다"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인류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정체성과 계속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영관 애국지사와 함께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에 김영관 애국지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2023.8.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kane@yna.co.kr

윤 대통령은 "주권을 회복한 이후에도 독립운동은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으로, 경제발전·산업화·민주화로 계속 이어졌다"며 "이제는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으로 계승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 수유리 광복군 합동묘역에 안장됐던 선열 17위와 미국에 머물던 황기환 지사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한 점을 거론하며 "해외에서 순국한 선열의 유해를 한 분이라도 더 고국에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는 14일에는 러시아 우수리스크에서 순국한 최재형 선생의 묘를 국립서울현충원에 복원하고, 부부 합장식도 거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광복회 회원도 심기일전해서 부끄러움 없는 독립 후손의 자존심을 잊지 않도록 각자 행동을 조심해서 '독립운동 후손들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끔 다같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화답했다.

독립운동가 양우조 선생의 손자 양인집 씨와 광복절 기부 마라톤 '815런'을 열어온 가수 션의 소감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오찬은 독립운동을 테마로 했다.

백범 김구 선생과 안중근 의사 고향인 황해도 해산물로 만든 해물냉채, 지복영 선생이 즐겨 먹은 총유병 등 모둠전, 권기일 선생이 처분한 종갓집의 종가 음식인 소고기 떡갈비·전복, 안희제 선생이 동지들에게 나눠줬던 망개떡과 선생 고향인 의령 특산물로 만든 수박화채 등이 차려졌다.

오찬 중에는 역사어린이합창단의 태극기 공연이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 환영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3.8.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kane@yna.co.kr

오찬에는 이종찬 광복회장과 광복회원, 특별초청 대상자 10명도 함께했다.

특별초청 대상에는 독립유공자 공훈 선양에 앞장서 온 김황식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과 이택선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윤동주 시인 육촌 동생이자 한국해비타트 이사장으로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가수 윤형주가 포함됐다.

송진우 선생 손자이며 공헌·선양 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 김구 선생 손녀인 김미 김구재단 이사장, 윤봉길 의사 손녀인 윤주경 의원, 김좌진 장국 손녀인 김을동 백야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 고문, 장진홍 의사 고손으로 3·1절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했던 장예진 양도 초청받았다.

김 여사는 이날 오찬에 앞서 김 지사에게 국가무형문화재 한산모시짜기 기능보유자 방연옥 장인이 제작한 '무궁화 자수 한산모시 적삼'을 선물했다.

건강상 오찬에 참석하지 못한 국내 거주 애국지사 6명(오희옥, 강태선, 이일남, 권중혁, 지익표, 이석규)에게도 고급 모시이불이 별도로 전달됐다.

airan@yna.co.kr

dh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